

직업을 구하십니까?

분

경기일수록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진다. 따라서 직장을 구하거나 기존의 직장을 나와서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회원이 최근 몇 년 새 부쩍 많아졌다. 어려운 경제 사정과 실력 있는 경쟁자들 때문에 좋은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자리를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실력을 쌓는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식하고 기도하며, 온전한 심일조를 내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일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음의 기사는 남편의 예기치 않은 실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던 레베카 비 데이비스 자매의 경험을 정리한 것이다. 직업을 구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이 여섯 가지 핵심 사항은 비단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회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실업 수당을 신청할 것

모든 사람들의 상황은 다르다. 그러므로 자신의 필요 사항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는 수당을 받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 즉시 지역의 실업 사무소를 찾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 사항에 대해 의논한다.

즉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할 것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한다. 직업소개소나 구인 및 취업 정보 사이트 및 임시직 소개소를 찾아본다. 와드나 지부의 취업 전문가, 전화번호부, 인터넷 웹사이트, 신문 광고 및 여



러분의 분야의 구직 기회를 알고 있을 만한 모든 인력을 동원한다.

계속해서 찾아볼 것

면접을 잘 봤다 하더라도 다른 기회를 찾아보는 일을 계속한다. 적극적인 자세로 계속 기회를 찾는 태도를 갖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던 자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졌을지라도 낙담하지 않게 될 것이며, 구직에 전념해야 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결과를 확인해 볼 것

종종 고용주들은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연락을 하여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할 때 고마워한다.

의료 보험 사항을 알아볼 것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의료 보험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민영 회사를 통한 보험을 들고 있다면 보험 혜택이 중단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 의료 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면 신속히 병원이나 치과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계속해서 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 회사나 전문 기관과 상의한다.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와 의논하도록 한다.

열린 마음을 가질 것

여러분이 원하던 직업이 아니거나 이동, 전근, 또는 이사를 요하는 직장의 자리를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경력을 쌓고 가족을 부양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새 직장을 구하는 동안 계속해서 바쁘게 생활하고 삶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끈기를 가지고, 그리고 가족 및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성공적으로 새 직장을 찾는데 여러분의 몫을 다할 수 있다. ■

레베카 비 데이비스, "직장을 잃었나요?", 엔사인, 2004년 2월호, 73쪽

2009 전세계 한인 청년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용환 장로
전세계 한인 청년대회 위원장

금년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우리나라 근대화 기적의 상징인 한강변에서 전세계 한인 후기 성도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청년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난 60년간 세계가 인정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인 후기 성도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여는 청년 대회를 한강변에서 갖는다는 것은 주님 복음에서 볼 때 참으로 큰 뜻과 의미를 갖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6년 후인 2025년에는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5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남부럽지 않는 선진국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무장된 우리 후기 성도 청년들을 간절히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자각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이 청년 대회를 마련하였으며, 이 대회에서 우리는 “나의 백성들은 그들 소유의 땅 ... 본향으로 [모여] ...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시온의 대업을 일으켜 굳게 세우기를 구하라(니파이후서 29:14 및 교리와 성약 11:6)”라는 주님의 권고를 배우고 실천하는 후기 성도 청년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본향으로 모여서 시온을 세우는 일은 우리의 선지자들이 오래 전부터 권고해 왔던 것입니다. 해롤드 비 리 회장님께서서는 전 세계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스테이크로 모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멕시코 성도들의 집합 장소는 과테말라에, 브라질 성도들의 집합 장소는 브라질에 있으며, 그렇게 하여 온 지상에 확장됩니다. 일본은 일본인의 집합 장소이며, 한국은 한국인의, 호주는 호주인의, 각국은 각 민족의 집합 장소입니다.”¹ 또한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자리에 함께 가까이 모여 서서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 올린다면, 그 어느 것도 이 신성한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² 그리고 교리와 성약 115편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의 땅에 그리고 그 스테이크들에 집합하는 것이, 진노가 온 땅에, 섞인 것이 없이 쏟아져 내릴 때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할 방어진이 되며 피난처가 되게 하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성도들이 더 많이 배워서 우리가 태어나고 가꾸어 온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큰 비전과 뜻을 가질 때 주님의 복음은 널리 퍼지게 될 것이며 시온의 스테이크의 경계는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시온으로 모이십시오. 이제 우리 한인 청년들은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여는 전세계 한인 청년대회에 모두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잔치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모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이며 또한 축복입니다.

리하이가 자녀들에게 전한 다음의 말씀은 순종과 그에 따른 축복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 너희가 그에게 귀 기울일진대,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남기노니...”(니파이후서 1:28)

이 땅의 성도들이 주님과 선지자의 권고를 따라 시온으로 모이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마련하신 축복을 한없이 받는 선량한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해롤드 비 리, “시온의 스테이크를 강화함,” 제143차 연차 대회에서 하신 말씀.
2.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올리십시오,”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56쪽.

시온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

변명의 여지가 없는 확고한 지침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성경진 형제 가족-



오른쪽부터 첫째 유리, 아내 이순희 자매, 막내 유리, 둘째 유림, 성경진 형제.

BYU-아이다호에서 학업을 마칠 무렵, 성경진 형제에게는 한국으로 돌아올 비행기 요금이 없었다. 가족을 부양할 돈은 물론이고 미국에 사는 동안 모아놓았던 이삿짐을 옮길 비용조차 없었다. 그야말로 맨몸인 그에게 미국에서 자리를 잡으라고 충고했던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성경진 형제에게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성경진 형제가 유학길에 오른 것은 아내인 이순희 자매와 결혼한 지 4년이 흐른 2001년. 그때 이미 두살 된 첫째 아이 유리가 있었기에 안정된 한국 생활을 버리고 유학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더군다나 유학 자금이라고 해야 전세금이 전부였다. 그렇지만 성경진 가족은 모든 일을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과감히 미국으로 떠났다. 그때 이미 성경진 형제의 마음속에는 열심히 공부한 후 귀국하리라는 확고한 다짐이 있었다. “교회의 대학은 그 목적에서 분명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에 유학을 떠날 때부터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힘든 유학 생활 동안 성경진 형제 가족이 의지했던 것은 역시 복음이었다. 매주 성전에 가고, 가족 기도회와 가정의 밤, 그리고 가족 경전 읽기를 꾸준히 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 때문이었을까? 성경진 형제는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전액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최단기간 졸업이라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 처음 얼마 동안 성경진 형제는 다양한 일을 전전했다. 30대 중반의 나이와 한국에서 취업하기 힘든 전공과목 등이 그의 발목을 잡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잘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데 힘썼다. 무슨 일이든 기회가 생기면 시도해 보았다. 그런 와중에도 교회의 부름에 충실하고 교회 지도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귀국한 지 2년 여가 흐른 지금, 그는 안정된 직장을 갖고 가족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시온을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다. 성경진 형제가 생각하는 시온은 다름 아닌 충실하고 의로운 개인, 즉 우리 자신이다. 의로운 자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시온이 되고, 시온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완전해지고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래서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이 시온으로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의롭고 충실한 사람들이 한국 땅에 더 많

이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또 하나의 직업이자 평생직장이라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의 부름을 기꺼이 수행하면서 자신과 가족이 '시온'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성경진 형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유학 생활이 제 인생에서 소중한 경험과 축복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실전을 위한 준비이자 훈련이었음을 압니다. 유학 중 배웠던 모든 것을 행해야 할 곳은 바로 자신의 나라임을 간증 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아이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커 가는 것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확고한 지침이 있습니다.”

현재 와드의 선교 책임자이자 스테이크 고등평의원으로 봉사하는 성경진 형제의 시온은 유학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건립 중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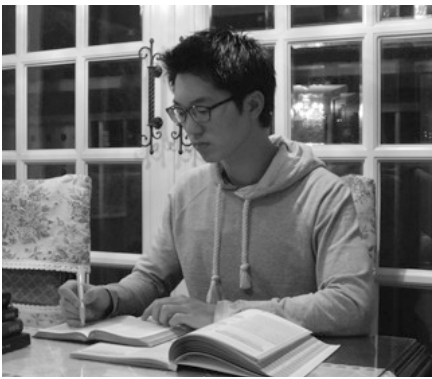
우리들의 특별한 새벽

보통의 청소년들은 단잠에 빠져 있을 새벽.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교회로 향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지난 4년간 열심히 세미나리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하게 된 네 명의 청소년들. 전국의 모든 세미나리 졸업자들을 대표해서 새벽 세미나리를 위해 친구들과는 다른 특별한 새벽을 보내야 했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구환오 형제(수원 스테이크, 신갈 와드)

중학교 때 처음 세미나리를 시작할 때는 4년의 세미나리 과정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하게 된 지금은 벌써 끝났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4년 동안 세미나리를 하면서 저는 스스로 더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매일 경전 읽기와 기도 매달리는 제 자신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행복했습니다. 원래 개인 경전 읽기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은 했지만 꾸준히 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미나리 교사님들의 공과에는 항상 경전 읽기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지속적으로 도움을 구하면서 경전 읽기와 기도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미나리를 통해서 기도와 경전 공부 가 항상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경전 공부는 청소년들이 항상 합당하게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맨 위 오른쪽 사진부터: 이서정 자매(가운대), 구환오 형제, 정다운나라 형제, 정립 형제, 권희진 자매(오른쪽)

저는 주위의 동생들에게 세미나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보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미나리를 시작하던 첫 해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4년째까지의 지속적인 세미나리를 통해 저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올바른 선택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 준 세미나리 수업과 교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권희진 자매(부산 스테이크, 해운대 와드)

청소년기를 세미나리와 함께 교회 안에서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경전 공부 과정인 세미나리를 졸업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세미나리를 열심히 공부하던 어느 날,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눈에 익은 참조 성구가 나왔습니다. 바로 세미나리 때 외워두었던 성구였습니다. 저는 같이 공부했던 반원들과 함께 경전을 찾지 않고 성구를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성구를 기억해 낼 수 있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세미나리를 하면서 제가 얻게 된 가장 큰 것은 주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왜 교회에 다녀야하며 이곳이 정말 참된 교회인지 고민하던 청소년기에 세미나리는 저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전과 가깝게 되도록 도와주었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경전에 대한 지식의 밑거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세미나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경전이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마음 속 깊이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세미나리는 경전에 대해 깊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해주었습니다. 학업과 세미나리 사이에서 고민한 적도 많았지만, 시간 관리를 잘하여 세미나리 공부와 학교 공부를 병행하며 열심히 했을 때 모든 부분에서 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세미나리를 사랑합니다.

이서정 자매(서울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 학창 시절의 매일 아침을 새벽 세미나리와 함께했는데 벌써 졸업이라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세미나리를 하면서 행복했던 일은 매일 교회 회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교회 동생들 언니들과 함께 만날 수 있고 함께 경전에 대해 공부 하고 얘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6년 동안 학교에 지각하지 않은 것도 세미나리가 저에게 준 보람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4년 동안 세미나리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간증과 신앙을 정말 많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4대 경전을 차례대로 배우면서 그동안 경전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이해가 안됐던 부분을 더 정확히 배우고 이해할 수 있었고 경전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미나리를 듣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귀찮고 힘들겠지만 그 잠깐의 유희를 이겨내고 세미나리에 참석하면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세미나리를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조셉 스미스가 참된 선지자임을 알고 있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살아계신 선지자임을 알고, 몰몬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섯 가지 간증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다운나라 형제(광주 스테이크, 송정 와드)

세미나리를 졸업하는 지금, 저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특별히 언제나 헌신적이신 세미나리 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커다란 사랑과 모범은 소중히 가슴속에 남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경전에서 배운 것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줄 때



**“청소년 시기에 참여했던
세미나리아 말로 제
인생의 진로를 주님의
방법대로 설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 가장 확실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윤환, 북아시아 회장단 제2보좌

가 있습니다.

저는 세미나리를 하면서 잊지 못할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세미나리를 하기 훨씬 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때까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내주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커다란 과제의 마감일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바빴고, 세미나리가 시작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밥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급했습니다. 어머니께 오늘은 갈 수가 없겠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다시 숙제에 몰두하려 했습니다. 세미나리가 시작될 시간이 되자, 저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세미나리에 가야할지에 관해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이며 제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명확히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만을 드렸고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늦게나마 세미나리에 참석했고, 결과적으로 저는 뜻밖의 도움으로 그 과제를 제시간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를 하면서 선교사와 동반자가 되어 한 구도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바로 얼마 전에 세미나리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전구절을 인용하면서 제가 교회에서 배운 것을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곧 선교 사업을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남의 간증, 남의 지식으로는 이웃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몰몬경이 참되다는 사실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세미나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준비될 수 있고, 큰 힘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세미나리는 영감 받은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정립 형제(서울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세미나리를 끝까지 듣고, 졸업할 수 있다는 사실에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데 청소년 시기에 배운 이 세미나리가 있기에 유희가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세미나리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소중한 친구입니다. 저는 세미나리가 끝나는 시각이 새벽이기 때문에 항상 일찍 등교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세미나리를 마치고 학교로 향했는데 저보다 먼저 온 누군가가 운동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다가가 보니 학생회장 선거 홍보를 하는 친구였습니다. 혼자서 동분서주하는 친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저는 팔을 걷어 부치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그 친구와 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미나리를 하면서 얻은 것들 중 무엇보다도 가장 값진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복음과 신앙이 그저 습관처럼 여겨질 때가 많았는데 세미나리를 통해 진정한 간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리는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기를 수 있게 만듭니다. ■



성전 결혼을 하기까지

영원하고도 합당한 결혼은 후기 성도 젊은이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 하나이다. 하지만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거나,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이 행복으로 향하는 영원한 결혼을 가로막기도 한다. 다음에 소개할 세 쌍의 부부는 성전에서 결혼해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들의 만남에서부터 결혼까지를 소개한다.



김민구 형제, 유현주 자매(울산 지방부, 경주 지부)

두 사람은 2007년도에 있었던 청년 대회에서 만났다. 여느 때의 청년 대회 처럼 별 기대 없이 참석했던 김민구 형제와 유현주 자매에게 2007년의 청년 대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 것이다. 당시 같은 대대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두 사람은 3박 4일이라는 기간 동안 서로를 알아갔다. 활동을 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할 때도 김 형제와 유 자매는 서로의 시선을 의식하고, 호감을 쌓아갔다. 하지만 그들이 가까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였다.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고 적극적으로 만나볼 것을 권유했던 같은 대대원들의 제안이 있었기에 김민구 형제와 유현주 자매는 청년 대회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청년 대회가 끝난 후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인 데이트를 시작했다. 전화를 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건 여느 연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그들의 주된 데이트 장소가 교회 모임이었다는 사실이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몇 개 월 간의 데이트 후, 그들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다. 물론 성전에서의 결혼이었다. 청소년 때부터 신앙 생활을 해 온 유현주 자매는 단발머리 청녀 시절부터 이미 성전 결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당연히 순종하고 싶었고, 성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김민구 형제 또한 사랑하는 자매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물론 성전 결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그들의 뜨거운 사랑과 의로운 열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성전 결혼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했다. 그리고 드디어 2008년 3월 1일에 한국 서울 성전에서 영원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의 느낌에 대해서 김 형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의식을 받을 때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언약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은 현재 행복한 신혼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연애 기간이 길지 않았기에 결혼 초기에는 사소한 일에도 의견

대립이 있었던 두 사람이지만 서로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해소 되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 또한 성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잘 안다. 또한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도, 두 사람은 무척이나 잘 알고 있다.

박주안 형제, 나선경 자매(인천 스테이크, 주안 외드)

박주안 형제와 나선경 자매는 연상 연하 커플이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것은 선교 사업 시절 함께 부산 선교부에



서 봉사하면서다. 그저 장로와 자매 선교사로만 서로를 대했던 그들은 몇 년 후 자신들이 뜨거운 사랑에 빠지리란 사실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귀환 후 교회 안에서 누나와 동생으로만 지냈던 그들은 2007년에 있었던 '전국 청년 영상제'를 준비하면서 가까워졌다. 모임을 자주 하면서 만날 기회가 많아졌던 박 형제와 나 자매는 언젠가부터 서로에 대해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정해져 버린 '누나'와 '동생'이란 단어를 두 사람 사이에서 지우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주안 형제가 운명을 결정지은 특별한 문자 메시지를 나 선경 자매에게 보냈다. "누나 이상의 느낌이 듭니다."

그 후 두 사람의 결혼은 일사 천리로 진행되었다. 데이트 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던 터라 주위 사람들 모두 깜짝 놀랐다. 특히 놀랐던 사람은 그들의 부모님이었다. 당시 박 형제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등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았다. 하지만 성전 결혼이 아니면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는 두 사람의 확고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교회 회원이 아닌 나선경 자매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쉽게 성전 결혼을 허락했다. 같은 와드의 자매는 시세보다도 훨씬 싼 가격으로 전셋집을 제공해 주었다. 집안 가구들은 갑자기 이사하게 되었다면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연락해 온 회원들을 통해 거의 다 마련되었다. 2007년 11월에 양가 인사를 하고 12월 28일에 성전 결혼을 하기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이 영원한 결혼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올랐던 두 사람을 축복했다. 나선경 자매는 성전 결혼을 했던 그날의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막상 성전 결혼을 하려고 하니 무척 떨렸습니다. 번복할 수 없다는 중압감 때문인지, 아니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책임감 때문인지 엄청나게 떨렸습니다. 그

런데 신기하게도 대기실에서 나와 인봉 장소에 도착해 남편을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편안해 졌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고결하게 느껴졌고, 모든 게 다 신성하게 느껴졌습니다. 강한 확신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보다 결혼 후 상대방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두 사람은 결혼하고 난 뒤 훨씬 더 많이 웃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입을 모은다.

변수환 형제, 조경희 자매(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뜨겁고 열정적인 연애가 아닌, 부드럽고 편안한 연애. 두 사람은 그렇게 시작했다. 동갑내기인데다 오랫동안 같은 스테이크에 있었으므로 변수환 형제와 조경희 자매는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갖지 못했다. 변 형제는 변 형제대로, 그리고 조 자매는 조 자매대로 각자 자신의 배우자를 찾아서 먼 길을 돌고 돌았다. 하지만 해답은 가까이에 있었다. 어느 날 문득 상대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 후, 영원한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자신도 모르게 서로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변수환 형제와 조경희 자매 둘 다 성전 결혼이 주는 축복을 교회에 다니면서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결혼을 선택하기까지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에 집중할수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다. 결혼을 하는 모든 연인들이 그러하듯이 현



실적인 문제들이 그들을 가로막은 것이다. 그렇지만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지도자와의 접견을 통해 조언을 얻으면서 차츰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008년 9월 27일에 한국 서울 성전에서 영원한 결혼을 했다. 조경희 자매는 성전 결혼을 하던 그날의 가슴 벅찬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다. "여러 준비들과 사소한 문제들로 의식 전에 부산한 상황이었는데 성전 결혼을 하는 순간만큼은 다른 세상적인 문제들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성스럽고 영원한 것이고, 제가 의식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변수환 형제는 "성전 결혼이 어떠한 것인지 잘 몰랐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성전 결혼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한다. 혼자 각자의 생활을 하다가 함께 산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기도 했다는 두 사람. 하지만 목표가 같기 때문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지금은 노력하는 시간들을 통해 서로 많이 닳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의로운 목표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 조금씩 깨닫고 있다.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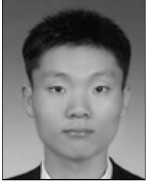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4명



강인웅 장로
울산 지방부
신정 지부
서울 서 선교부



강창훈 장로
서울 영동 스테이크
성남 와드
부산 선교부



강인희 장로
울산 지방부
신정 지부
대전 선교부



이영은 자매
광주 스테이크
송정 와드
서울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부산 스테이크

대신 지부 지부 회장: 김만수(전임: 정무정)
해운대 와드 감독: 박규열(전임: 백상봉)

서울 스테이크

홍제 와드 감독: 유중욱(전임: 김형태)

서울 동 스테이크

도봉 와드 감독: 박진수(전임: 김태기)

청주 스테이크

상당 와드 감독: 이우철(전임: 김봉수)

알립니다

수취인 후납용 리아호나 구독 엽서 사용이 중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월 구독 엽서를 통한 신청이 100여건을 밀도는 관계로 2008년 12월부터 부득이하게 우체국과의 구독엽서 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liahona@ldschurch.or.kr

홈페이지: www.lds.or.kr ⇨ 교회 잡지 리아호나 ⇨ 리아호나 구독 신청

팩스: 02) 737-3718

전화: 02) 2232-1441 (내선 452)

물품 신청서

기사를 모집합니다

선교 사업 경험

선교 사업과 관련된 훌륭한 경험이나 간증을 나눠주세요. 특히 2008년에 한국을 방문하셨던 십이사도 정원회의 스코트 장로님의 “선교 사업을 가장 우선으로 하라”는 권고를 들은 후 선교 사업을 결심한 회원이나 현재 봉사 중인 전임 선교사의 간증을 기다립니다. 분량은 A4 용지로 반장입니다.

가정의 밤 활동 제언

가정의 밤에서 가족들이 함께 할 만한 활동의 제언을 받습니다. 직접 해 봤던 활동이나 가정의 밤에 어울릴 만한 활동 아이디어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동 제언을 보내실 때는 활동의 이름, 구체적인 방법, 장점 등을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청소년 상호 향상 모임 활동 제언

스테이크나 지방부, 혹은 와드나 지부에서 실제로 해 봤던 상호 향상 모임 활동 사례를 기다립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판에 박힌 활동이 아닌 기발하면서도 영적인 면을 고양할 수 있는 활동 사례가 필요합니다. 보내주실 때는 활동의 이름과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장점 등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성동우체국 사서함 22호

한국 관리 본부 리아호나 담당자 앞

(우편 번호 133-600)

팩스: 02-2235-1395

이메일: aron1979@hanmail.net (전건우)

문의 전화: 02-2232-1441 (내선 번호 564)

정정합니다

2009년 1월호에 실렸던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에서 구포 지부 지부 회장의 이름이 잘못 기재 되었습니다. <구포 지부 지부 회장: 박장규(전임: 안재석)>이 바른 표기입니다.